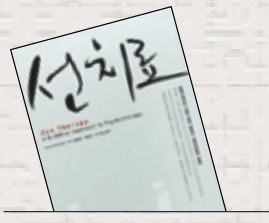


불교에서 '심리치료의 해법'을 찾다



심리치료
브래지어 지음
김형호·박종래·한기연 옮김
학지사 펴냄 | 1만7000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였다. 생각이 있으면 존재하고 생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터이다. 붓다는 '존재가 허공이며, 허공이 존재다' 라고 한다. 생각이있음과 생각이없음은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다. 인간의 온갖 심리적인 문제, 괴로움은 생각, 관념 등에 대한 태도에서 연유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데카르트적 입장은 서양적 사유의 밑바탕이며 서양에서 발생한 다양한 상담과 심리치료 이론들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있음인 채로 있음이고 없음인 채로 있음인 이 역설처럼 보이는 붓다의 가르침은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와 고통, 그리고 그 해결에 어떤 빛을 던질 것인가?



전문가 서평
윤호균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불교를 심리치료의 심리학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심리치료인가?" 선 치료의 저자 브래지어가 갖고 있던 의문은 비단 그만의 의문이 아니라 심리치료와 불교 모두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문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정신치료학회나 불교심리치료학회가 결성된 모티브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교와 심리치료라는 상이한 전통의 사유를 통합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브래지어는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내었다. 그는 심리상담자이면서 동시에 수행단체를 이끌고 있는 영국의 심리학자로서 그의 상담경험과 수행경험을 토대로 상담 및 치료와 불교의 가르침을 연결, 통합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겪는 온갖 심리적인 괴로움의 원인을 '마음의 조건화 작용' 즉 연기에서 찾고 있다. 조건 지어진 존재를 자기라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는 한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괴로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조건 지어진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며 실체가 아니므로 거기에 매달리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윤리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고통을 떠나 떠도는 나그네, 자연의 품을 떠난 인위적 존재인 우리의 귀향, 자연의 품으로의 귀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브래지어에 의하면, 우리들의 고통, 괴로움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고통, 자연, 즉 우리의 본래 성품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마음의 조건화 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연의 마음자리로 돌아가 그 마음자리에서 순수하게 인연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자 또는 치료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치료자 자신의 마음을 정정하게 하여 내담자가 그의 온갖 괴로움, 갈등, 비밀 등을 거리낌 없이 터놓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브래지어는 이 빈 공간을 마련함에 있어서 인본주의 상담의 대표인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들과 보살의 마음을 연결 짓는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공감은 관음과 법장보살의 자비를 닮아야 내담자의 분노를 치유할 수 있고,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은 보현과 미륵보살의 사랑을 닮을 때 내담자의 탐욕을 치유할 수 있고, 상담자의 진실성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닮음으로써 내담자가 망상과 집착을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담자는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비, 사랑, 지혜의 공간에서 그의 생각과 감정, 욕망 등이 마음의 조건화 작용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그의 고통인 원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므로서 문제와 괴로움의 환영(幻影)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위빠사나 명상의 치료적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 동양의 상담자, 치료자에게 고무적인 일이지만 선 불교의 정신을 상담 및 치료와 연결, 통합한 브래지어의 업적은 또 다른 반가움이다. 단지 아쉬움을 지적한다면, 마음의 조건화 작용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조건화 작용을 어떻게 놓게 되는지 그리고 사랑, 자비, 지혜가 각각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대한 처방처럼 제시되는 것이 텅빈(空)의 진정한 의미에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무튼 저자의 참신한 발상은 그가 인용한 바 있는 이등식, 정창용을 위시한 한국정신치료학회원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에서 크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국내의 상담자와 치료자가 저술한 보다 알차고 훌륭한 책이 나와서 브래지어는 물론 세계 도처의 치료자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되길 고대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마음혁명'



마음혁명
김형호 지음
살림 펴냄 | 1만5000원

"악(惡)이란 명목으로 선(善)이라는 가치의 이면에 깃들어 있는 선의 배설물과도 같다... 악은 선으로 청소될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악을 미워하여 한 없이 뿌리 뽑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나의 결심은 이미 악을 동반하게 된다. 악을 미워하여 그와 대결하겠다는 그 선행의 마음에 이미 독성이란 악이 소리 없이 스며들어 있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정년퇴직한 철학자 김형호 명예교수는 그런 사례로 신자군전쟁과 스텔린 독재, 홍위병의 폭력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선악의 문제는 물론이고 자유와 평등, 이기주의와 도덕주의 등의 대립이나 분열, 나아가 그 통합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마음혁명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세상은 소유적 욕망이 그려낸 사이버스페이스이므로 "세상을 혁명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혁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학은 언제나 실용적이었고 그 자체가 오직 '쓰임'으로 써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한 교수는 그런 사례 52가지를 중심으로 엮은 이번 철학에세이에서 분성과 분능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분능은 생존을 위한 소유욕이지만, 분성은 자기의 특성을 그냥 꽃피우고 성취하고픈 욕망이다."

이 책은 김 교수가 평생 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세상, 특히 대중과의 소통을 꾀하는 책이다. 그런 만큼 책에 예시도 펼쳐진 다양한 주제는 동서고금의 철학과 우리 시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물이며서도 읽기에 어렵지 않다.

김주일 기자

불교에 관한 모든 것 한눈에



가산불교대사전 권9
지관 편저
가산불교문화원 펴냄 | 15만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한글로 된 국내 최대의 불교종합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전> 제 9권을 최근 발간했다. 지난해 8권에 이어 1년여 만에 선보인 <가산불교대사전> 제 9권은 1130페이지 분량으로 범종루부터 보살계도까지 '부' 관련 표제어 500여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다.

<가산불교대사전>은 불교학 용어뿐 아니라 불교관련 인명·사찰·사지·문화재·역사적 사건까지 불교 관련 슬어를 두루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불교대백과사전으로, 1999년 1·2권이 나온 이래 매년 1~2권씩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본책 15권을 비롯해 총 18권으로 편찬 예정인 <가산불교대사전>에는 15만여 표제어가 실리게 된다. (02)765-9602 김주일 기자

포교 활성화 전략 지침서



포교이해론
포거연구실 엮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갑수목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포교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포교이해론>은 포교가 무엇이며,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대 포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포교를 연령별(어린이, 청소년 등), 특수계층별(군장병, 경찰 등), 직장직능별로 나눠 필요성을 제시한 점은 포교일선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꼭꼭 씹어 포교 전략으로 삼을 만하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고명석씨는 "사찰이 성장하려면 법회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책에서는 법회의식 전반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법회 운영의 효율적 방안과 실용적 지침도 제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숨결' 담은 설법집



부처, 몸소 말하다
이삼규 편저
학고재 펴냄 | 1만8000원

아함경(阿含經)은 '전해 오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산스크리트어인 '아가 마(gama)'를 한역(漢譯)한 것이며, <아함경>은 구승 형식으로 전해오던 부처의 가르침을 부처의 사후 100년경 문자화한 것이다.

'아함경(阿含經) 새겨보기'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기원전 6세기경 만들어진 경전으로 부처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기까지 행적과 사상을 담은 <아함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간추려 놓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아함경>에서 붓다가 제자의 특성에 맞춰 난이도를 달리해 묻고 답한 것처럼 일반 독자들도 새겨보기 쉽도록 경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성제, 연기론 등 불교의 핵심 교리와 계율, 수행법 등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모아 주석과 해설을 단 것이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안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하루 108배 내물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미디어
3	무관사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4	철을 가져다 줄하는 법	정건	붓다의 마음
5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6	스님 마음이 불탄다	법문	정토
7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지현	조계종출판사
8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양리 브뤼넬	솔바람
10	화, 육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툼튼 초드론	미디어 월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화두참구의 길잡이! 간화선의 필독서! 《벽암록》!
선어록의 최고봉

번역기간 9년! 출판기간 3년! 12년 만에 출판된 벽암록 완역본! 한국 禪宗史上 최초의 완역본!

“국내최초의 完譯版!”

석지현 역주 해설본 《벽암록》의 특징!

- ① 국내 최초 《벽암록》 완역 해설본!
- ② 수시·본적·착어·평장·송·송학어·송경장을 모두 번역하고 해설한 책!
- ③ 벽암록 권문(문)의 원문 수록과 현대 작업 완료!
- ④ 벽암록 네 개의 이본(異本) 대조!
- ⑤ 벽암록 100칙 공간 하나하나마다 활구(活句, 광구할 부분)와 사구(死句, 이해할 부분을 일일이 구분하여 제시한 책!)
- ⑥ 장광 9년에 걸친 역주 작업, 출판기간 3년!
- ⑦ 벽암록 속어 낱말사전 완성!

碧巖錄

전5권

전5권 완역

전5권 값 120,000원 - 각권 500쪽 신국판 양장

인도사 108 장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도의 문화를 모르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인도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읽어야 할 책.

아주 쉽게 인도불교 역사를 이해할만한 책이 없을까?

지은이 박규표
4·8배판 변형 480쪽
값 15,000원

정말 멋져 누가?

- 1 등차 쓰는 엄마와 민하 그리는 아빠가 함께 단돈 책
- 2 초등학교생인 디현이에게 엄마가 들려주는 부처님 이야기
- 3 아직도 아이들은 부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세상을 살다가 죽어가셨다는 사실에서 이 책은 출발하고 있다. 신격화된 부처님도 아니라 우리처럼 먹고 자고 말하고 행복을 찾았던 사람으로서의 부처님

글 박신영 · 그림 강병호
4·8배판 152쪽 · 양장제본 · 값 9,300원